무주반딧불야시장 13일 개장

11월까지 토요일 19시~23시 열려… 저녁 7시부터 축하공연

무주반딧불야시장이 오는 13일 개장(19:00~)한다.

개장 첫날을 맞아 저녁 7시 부터는 전자현악기 연주가 제니유의 축하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다.

무주반딧불야시장(19:00~23:00)은 11월까지 토요일마다 즐길 수 있으며, 매주 18개 부스에서 '별보고!(약초튀김, 전통전, 묵사발 등), 장보고!(무주군 반딧불 농·특산물, 태권도 인형 등), 만나고!(LED반딧불 만들기, 매직쇼, 버블쇼)'를 즐길 수 있다.

이것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산골영화제(6.2.~6.6.)·반딧불축제(8.26.~9.6.)와 함께 하는 낭만이, 늦가을에는 밤, 고구마, 옥수수를 모닥불에 구워먹는 추억이 덤이다.

올해는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6.24.~30.)와 연계한 특색장터도 열릴 예정이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반딧불야시장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올해는 전통시장 안에서 가족과 함께 즐기는 복합문화야시장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무주반딧불시장에서만 보고, 듣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먹거리를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무주반딧불야시장은 지난 2014년부터 무주시장상인회와 야시장운영위원회, 시장매니저가 주관하고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후원하는 가운데 운영되고 있으며, 4월 말부터 11월까지 운영됐던 지난해 반딧불야시장에는 총 1만1,000여 명이 방문해 1억 3,000여만 원의 매출 성과를 올렸다.

무주읍 장터로 2에 위치해 있는 무주반딧불시장(http://www.bandimarket.com/)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매달 1일과 6일이 장날이다.

주로 마늘과 고추, 고랭지 채소, 약재, 사과, 산나물 등 다양한 밭작물들과 과실류들이 거래되고 있으며 상인 2세들이 운영하는 시장 카페에서 마시는 전통 차 한잔과 순대를 비롯한 어죽과 보리밥, 장터국수가 별미다. /무주=전문선 기자

내일 '들꽃향기 피어나는 쪼꼬만한 음악회'

장수군, 오후 5시 누리파크 한누리식당야외에서

장수군은 섹소폰을 주 메인으로 기타, 마두금 등의 악기로 '들꽃향기 피어나는 쪼꼬만한 음악회' 행사를 장정복 사회로 오는 11일 오후 5시에 누리파크 한누리식당야외에서 풍성한 운율로 따뜻한 감성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오프닝 무대인 1부 섹소폰연주자 한국희 기획조정실장의 인사말과 김경남 님의 향기 섹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유일권·박우철의 연모를 끝으로 풍성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2부는 하영택의 마두금 연주 퀴사스 퀴사스 퀴사스를 시작으로 장정복의 섹소폰 연주, 조용필의 허공을 끝으로 막을 내릴 계획이다.

출연진으로는 ▲노래와 기타 연주자로 구태영·김범수의 제발,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마두금연주로 카치니의 아베마리아 ▲섹소폰에는 차주호의 안동역에서, 이형민의 행운대엘레지, 유기종의 나그네설움, 이원빈의 강승용의 가방을 든 여인, 장정복의 섬마을 선생님, 유일권의 날개, 송창록의 잊게 해주오, 김용구의 열애, 유상일의 갈대의 순정 등 13명의 연주자가 장수의 봄밤을 흥겨운 장으로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희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음악회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장수군민 외에도 누구나 반긴다"며 "무대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따뜻한 음악회를 마련할 예정이오니 오셔서 함께 어울려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익산시, 어버이날 '효행 수상자' 6명 배출

목련장 조정현, 효행 일반 도지사 표창 남궁택 · 서금원씨 등

익산시가 지난 8일 제45회 어버이날을 맞아 훈훈한 효행자 수상 소식을 전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제45회 어버이날을 기념 효행 수상자로 전라북도에서 선정된 도지사 이상 정부포상 수상자 16명 가운데 익산시에서 6명을 배출해 시민에게 따뜻한 감동을 전달했다.

국민훈장 목련장을 서훈 받은 조정현(60세)씨는 십여 년간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며 노인복지향상에 힘쓰는 한편 노부모를 극진히 보살핀 공로를 인정받았다.

도지사 표창으로 효행 일반부문 수상자는 남궁택(72세)씨, 서금원(34세)씨, 효행 청소년부문에 김모군(19세, 학생), 효 실천 단체에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병기), 팔봉환경사랑회(대표 오재선)가 각각 선정됐다.

남궁택(금마면, 72세)씨는 100세가 훌쩍 넘은 고령의 노모를 극진히 모시는 숨은 효행이 밝혀져 화제를 모았고, 김 모 군(고3)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조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효행을 펼쳤다.

효 실천 단체로 도지사 표창을 받은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은 오는 18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고희찬을 열어 효 실천을 이어가고, 이 자리에서 효행 수상자들에게 상장이 전수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무진장소방서, 소방현장활동 사진 · 포스터 전시회 12일까지

무진장소방서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무주리조트 및 무진장소방서 로비에서 소방현장활동 사진과 포스터 우수작에 대해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2016년 도내에서 실시한 소방현장활동 사진과 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당선된 40점의 작품이다.

전북도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구조, 구급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사진과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우수작품이 함께 전시돼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바리스타&홈카페마스터과정' 개강식

김제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 여성회관 3층 직업훈련 강의실에서 바리스타&홈카페마스터과정 교육생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교육훈련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8일 개강식을 가졌으며 7월 24일까지 운영된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바리스타와 홈카페마스터 두가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편성했다.

수료후 취·창업을 위한 지속적인 상담 및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개강식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끝까지 교육과정을 수료해 자격증 취득 후 취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익산시, 체납지방세 부동산 공매처분 예고통지서 발송

익산시는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부동산 공매에 앞서 아직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 상습 체납자에게 공매처분 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시는 이번 부동산 공매처분 예고통지서를 수차례 납부 독려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약속을 어긴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발송한다.

체납세를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공매]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즉시 공매처분할 수 있지만, 소유재산 강제매각에 앞서 다시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밀린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란다"며 "상습체납자는 언제든 재산을 강제매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인 공매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부가가치세 9억 8000만원 환급받아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등 3개 사업 경정 청구해 금액 전액 받아

익산시는 지난달 익산세무서로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9억 8,000만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받아 시 재정에 보탬이 됐다고 밝혔다.

시는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의 부가가치세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시설물 건축이나 유지보수에 투입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공제받는 규정에 따라 이번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시는 2016년도까지 익산시에서 시행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을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 동안 전수조사하여 법정 기간 안에 있는 경정청구 3개 사업을 선정해 환급 신청했으며, 지난 4월 28일 익산세무서로부터 9억 8,000만원을 환급받았다.

환급받은 대상사업은 2016년까지 준공된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등 2개 사업으로 환급업무를 전문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회계과 이창수 주무관이 직접 지출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정밀 검토·분석하여 환급청구해 청구액 전액을 환급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국세청과의 의견 차이를 적극 해명하고, 장기간에 걸친 끈질긴 노력 끝에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환급금은 복지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에 긴요하게 쓰일 것"이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스템을 갖추어 시 수입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정부3.0 추진 '우수기관' 선정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인센티브 5000만원 특교세 확보

익산시가 2016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자치부가 정부3.0의 성과 확산과 내재화를 위해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 실적을 평가한 이번 평가에서 익산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인센티브로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시는 △전 직원 대상 정부3.0 사이버 교육 및 정부3.0 서비스 주민설명회 실시 △국민이 정책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는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민관 협업의 대표적인 모델을 제시한 '익산시민아카데미' 추진 등이 정부3.0 가치 확산에 기여한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용연 기획예산과장은 "정부3.0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전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인센티브로 받은 5,000만원은 직원들의 의자 교체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개방·공유·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